

실크옷 넣으면 시가 ‘주무르기 세탁’... “빨래할 맛 나네”

LG전자 AI ‘트롬 세탁기 씽큐’

의류 무게기반으로 재질 확인 AI가 6모션 중 최적모드 선택 사용 습관 기억해 옵션 설정 와이파이가 건조기와 연동도

LG전자 트롬 세탁기가 더 똑똑하고 깨끗해졌다.

LG전자는 12일 인공지능 DD세탁기 ‘LG트롬 세탁기 씽큐(모델명 F21VD)’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탁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무게를 통한 의류 재질을 확인한 후, LG전자만의 세탁방법인 6모션 중 최적의 모드를 선택한다.

LG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인테렉 시험을 통해 옷감 손상을 종전 대비 10% 이상 줄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섬세한 의류 재질인 경우 흔들기와 주무르기로 세탁하는 방법이다.

건조기와도 연동된다. 와이파이가 LG 씽큐에 연결하면 된다. 세탁기에서 스마트페어링 기능을 통해 세탁 코스 정보를 건조기로 보내면 알아서 건조 코스를 설정해준다.

스마트케어 기능은 사용 습관도 기억한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고려해 최적의 세탁 옵션을 설정해주며, 최근 5회 사용 중 3회 이상 설정한 옵션을 우선 선택한다.

세탁기 통 위생도 강화했다. 옷감을 끌어올리는 리프터를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소재로 바꾸면서다.

디자인도 프리미엄 스타일로 바뀌었다. 전면 도어 소재를 일체형 블랙티트 컬러 강화유리로 변경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배가했다.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와 잘 어울린다. 플라스틱 재질보다 흡습도 줄어든다. 청소 등 관리도 쉬워졌다.

아울러 LG 씽큐 앱을 사용해 세탁기 사용과 관리까지 미리 해주는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니위시와도 결합된다.

H&A사업본부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LG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DD세탁기를 앞세워 국내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트롬건조기스팀씽큐(좌)와 함께 선 인공지능 DD세탁기 ‘LG트롬세탁기씽큐. /LG전자



베일벗은 제네시스 첫 SUV ‘GV80’ 가솔린

디젤 2만대 판매 돌파 ‘라인업 완성’ 2.5터보·3.5터보...6037만원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와 함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이 가솔린 모델(사진)을 추가하며 판매 상승세에 속도를 높인다.

제네시스는 9일 GV80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GV80은 현재 내수 시장에서 디젤 모델만 판매하고 있지만 지난달 기준 2만1000대 계약건을 넘기며 흥행몰이 중이다. 특히 올해 전체 판매량은 2만4000대 돌파가 이달중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GV80의 흥행은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네시스 GV80은 지난 1월 28일 미국에 첫선을 보인 후 6000대 이상의 계약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솔린 모델까지 추가하면서 판매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에 신규 2.5터보, 3.5터보 엔진을 최초 적용하면서 3.0디젤 모델과 함께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5터보 6037만원 ▲3.5터보 6587만원부터 시작된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의 후면부에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 형상과 디자인 통일감을 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섬세한 고급감을 표현해냈다. 2.5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0kgf·m 등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9.7km/L(5인승, 2WD, 19인치 타이어 기준)다.

/양성운 기자 ysw@

3.5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8.6km/L(5인승, 2WD, 20인치 타이어 기준)다.

특히 GV80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2.5터보, 3.5터보 엔진은 ▲듀얼 퓨얼 인젝션 시스템 ▲수냉식 인터쿨러 등으로 연비 효율과 응답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듀얼 퓨얼 인젝션 시스템은 ▲연료를 연소실 내부에 직접 분사하는 가솔린 직분사(GDi) ▲연료를 연소실 입구 흡기 포트에 분사하는 다중 분사(MPi)의 장점을 융합해 차량 주행 조건에 따라 최적의 분사 방식을 적용한다.

수냉식 인터쿨러는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냉각수를 통해 빠르게 냉각시켜 터보 차저의 응답성을 높여준다. 이로써 향상된 가속감과 함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역동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2.5터보 엔진에는 냉각수 흐름 및 온도를 제어하는 ‘가변 분리 냉각 시스템’ ▲3.5터보 엔진에는 실린더 정중앙 부위에서 연료를 분사해 연소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연비를 개선하는 ‘센터 인젝션(Center Injection)’ 등이 적용됐다.

한편 제네시스 GV80은 지난달까지 누적 계약 대수 2만 1000대를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계약 고객 중 82.3%가 4륜 구동(AWD)을, 53.2%가 22인치 휠·타이어를 선택했으며, 외장 컬러는 31.6%가 우유니 화이트, 24.4%가 비크 블랙을, 내장 디자인은 58.9%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II 사양을 선택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주주환원 강화”

장동현 SK 사장 주주들에 서한

SK(주) 장동현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주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SK는 9일 장 사장이 주주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해에도 주주들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서한에는 올해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기업 가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잠재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어가고, 경영 성과와 주주 환원 등 주주 친화 경영 가속화도 약속했다.

SK(주) 성장 사업의 2019년 주요 성과도 담겼다. SK바이오팜이 독자



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 프리 기술을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매출액 1000억 대를 창사 처음 돌파했고,

미국에서도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SK팜테코를 설립해 시너지 극대화도 꾀하고 있으며,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사 SiC 웨이퍼 사업부문을 인수한 내용도 포함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투자 의사 결정시 환경과 사회, 정부(ESG) 측면과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 환원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다. 지난해 주당 5000원 배당을 유지하고 9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 사장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그것이 곧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이루는 방안”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로,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단순한 구조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경영 체계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SKT 빅데이터 마케팅으로 중소기업인 지원

‘티딜’ 서비스 20일까지 신청 접수

SK텔레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로 힘을 보탠다. 지난 5일 자사의 유통망과 협력사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중소기업인의 마케팅 돕기에도 나선다.

SK텔레콤은 자사 빅데이터 기반 문자 마케팅 서비스 ‘티딜(T-Deal)’을 활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중소기업인의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티딜’은 각 상품별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상품의 정보 확인부터 구매까지 가능한 티딜 전용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본인의 관심 상품을 최저가로 추천받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인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국가가 지정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가 가능하다.

선정된 중소기업인들은 티딜 서비스를 마케팅 비용(문자 발송, 전용 온라인 페이지 등록 비용 등)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중소기업인과 서비스 종료 후 판매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티딜 서비스는 구매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인의 상품 판매를 도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결제와 배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도 운영한다.

SK텔레콤 이재원 광고사업유닛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SK텔레콤의 ICT 기반 마케팅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폴크스바겐 파사트에 넥센타이어 ‘엔페라 AU7’

넥센타이어가 폴크스바겐 중형 세단에도 장착된다.

넥센타이어는 폴크스바겐 파사트 북미용 모델에 ‘엔페라 AU7(사진)’을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파사트는 전세계 중형차 최초로 30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넥센타이어는 고급 세단을 위해 개발한 엔페라 AU7을 공급해, 북미 지역 다양한 기후와 도로상황에서도 최상의 주행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소음과 진동 등 기준도 높였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제타와 플로, 티록 등 폴크스바겐 차량에 지속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해왔다. /김재웅 기자